

제 4 교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Philos모의고사 1회

사회탐구 영역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매 선택과목마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 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생활과 윤리 1, 2, 3, 4쪽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Philos모의고사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현실적 도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덕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
- ②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간과
- ③ 일상생활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간과
- ④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
- ⑤ 도덕 현상의 객관적 서술보다 도덕 개념의 논리적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

2. 다음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부가 있는 후에야 부자가 있으니 부부는 사람의 도리의 시초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의 혼인하는 예를 만들어 그 일을 중하게 했다.

- ①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 ② 자녀가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 ③ 형제자매는 서열이 없는 상호 평등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 ④ 부부는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 ⑤ 형제자매는 연령의 차이에 따라 장유유서의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3. 다음은 서술형 문항과 학생의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예술에 대한 갑, 을의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예술은 예술 외에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며, 외적인 유사함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아름다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예술의 고유한 목표이며, 예술가의 의무이다.

을: 예술은 인간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저항해야 할 도덕적 이상, 올바른 성품 등을 표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야 한다.

같은 ㉠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 예술가는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 예술이 사회의 도덕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덕적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며, ㉣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을은 모두 ㉤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바꾸어 세운다.

을: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전만큼 자유로운 화합 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 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이다. 사회 계약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 < 보 기 > —

- ㉠. 갑: 군주는 백성들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 갑: 군주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재화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 을: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는 속성을 지닌다.
- ㉣. 을: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공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5. (가)의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을 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에 의한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병: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불의한 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법을 어기는 불복종을 할 수 있다.

(나)

— < 보 기 > —

- ㉠. A: 시민 불복종은 유용성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 B: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 행위는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가?
- ㉢. C: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 ㉣. D: 폭력을 수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6.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 ① 비종교적 인간은 탈속성화의 산물이다.
- ②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상상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물 그 자체를 성스러운 것으로 본다.

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죽음과 삶은 사시의 순환처럼 자연의 과정이다. 삶을 만나 태어난 것이고, 죽음은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때에 맞고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과 기쁨이 끼어들 수 없다.

을: 네 전생을 알려거든 현재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내생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라. 고의로 업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내세에 받는다.

< 보기 >

ㄱ. 갑: 삶은 기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이다.

ㄴ. 을: 해탈에 이르려면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ㄷ. 을: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므로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된다.

ㄹ. 갑, 을: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이 모두가 긍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갑: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을: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 ① 해외 원조 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 ②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인가?
- ③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④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가 의무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가?
- ⑤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다 사용하고 남는다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하는가?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p> <p>을: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p> <p>병: 사회적 가치들의 고유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그러한 의미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게 되는 '복합 평등 체제'를 추구해야 한다.</p>
(나)	

- ① A, C: 최소 국가에 의해서만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 ② A, F: 빈곤층을 위한 세금 징수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B, E: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한다.
- ④ C, E: 분배의 결과가 공정하다면 분배의 과정도 공정하다.
- ⑤ D, F: 국가는 사적 소유에 대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다. 또한,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행이다.</p>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국의 지도자 A는 살인을 저지를 시에 사회적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며 국가로부터 추방시켰다. • 을국의 지도자 B는 형벌의 효력과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병국의 지도자 C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벌은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보기 >

- ㄱ. A는 살인자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이 국가에게 없음을 간과한다.
 - ㄴ. B는 사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행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ㄷ. C는 살인자에게 살인을 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ㄹ. A와 C는 형벌이 공익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갑: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을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자유 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하다.

- ① 갑은 기업이 기업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영자가 기업 소유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장 규칙의 준수를 벗어난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기업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모두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목적을 기업의 이익 증진으로 본다.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치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택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보기 >

- ㄱ. 전쟁의 중단이 영구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 ㄴ.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를 채택해야 한다.
- ㄷ. 세계 평화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할 때 영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 ㄹ. 세계 만민법에 근거하여, 이방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존 경쟁 속에서 경우에 따라 발생하곤 하는 인간과 자연의 양자택일에서는 인간이 항상 유리하며, 자연의 존엄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연은 인간과 인간의 지고한 존엄성에 굴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책임과 책임감을 인간이 가지도록 하는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② 미래의 예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인간에게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제시해야 한다.
- ④ 기술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 ⑤ 현재대와 미래 세대에게는 비호혜적 책임의 의무가 부과된다.

14. 갑, 을 사상가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3점]

갑: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에 방해받을 받게 된다.

을: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을 필요로 한다. 담론에서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되고 참여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타당성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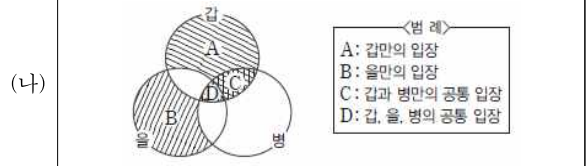
	질문	답변	
		갑	을
①	이타적 행동 및 성과와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한 결과라고 주장하는가?	예	예
②	행위자가 아닌 행위 중심의 윤리인가?	예	아니오
③	생명 지속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자기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가?	예	아니오
④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가?	아니오	예
⑤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아니오	아니오

15. (가)의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의식이 있든 없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과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룬다.

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병: 가축은 사용과 식량을 위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식량과 의복, 다른 도구들을 얻기 위해 있다. 자연은 아무것도 불완전하게, 그리고 헛되게 만들지는 않는다.



< 보기 >

- ㄱ. A: 쾌도 감수 능력만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 ㄴ. B: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
- ㄷ. C: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 실현을 향해 활동한다.
- ㄹ. D: 성장한 포유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며, 갈등의 제거는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① 갈등에 대한 강제력의 사용은 항상 필수적이다.
- ②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이다.
- ③ 개인의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이다.
- ④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 개인은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친다.
- 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도 허용된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북한 주민들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으며,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들입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 역시 그 입장에 대해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교류 등과 같은 점진적인 통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 저의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정치적인 통일 즉, 급진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대한 빨리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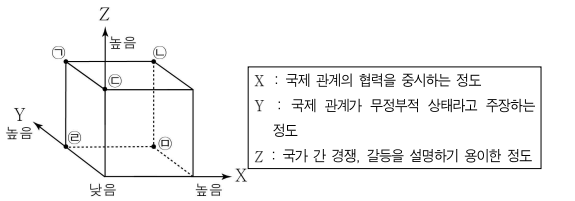
을: 하지만 급진적인 통일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통일을 진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많으며 그로 인해 자국의 국민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①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 ② 북한 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존재하는가?
- ④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
- ⑤ 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가?

18. 을에 비해 갑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이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이기적인 수밖에 없다.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뿐이며,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일 뿐이다.

을: 인간은 선한 존재 혹은 이성적 존재이며,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국제 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서 유래한 것일 뿐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출산을 통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때만 정당화된다.

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하고 있다면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병: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적 관계는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갑: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을: 성적 관계에는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는다.
- ③ 을: 서로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병: 성적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을, 병: 상호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다음은 근대 사상가 A에 대한 진술이다. 옳은 진술만을 골라 답하시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문항	갑의 답변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아니오
사회적 유용성보다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	예
㉡	예
총점	2점

* ㉠은 예, 아니오 중 하나임.
**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 보 기 >

- ㉠. ㉠은 '예'이다.
- ㉡. A는 쾌락이 곧 행복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여임을 간과한다.
- ㉢. ㉡에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 ㉣. ㉡에 '사회 전체의 쾌락은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능가한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